



전북대 간호대 대학원생들,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46명이 실시한 모아 발전기금 6,650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요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대학 대학원생들의 기부는 이번이 8년째다. 선배로서 매년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해왔던 기부가 이번에는 '글로벌대학 30 사업'과 '지역 혁신사업' (RIS 사업) 등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학의 변화를 이뤄 내고, 더불어 후배들의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했다. 선미신 간호대학 박사 대표는 "올해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등 대학사회가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며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의미를 밝혔다. 양요봉 총장은 "우리대학의 변화와 혁신에 간호대학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응원의 손길을 보내줘 매우 감사하다"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랫폼대학으로 도약해 글로벌대학으로의 담대하고도 큰 걸음을 옮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건일 소정미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는 13일, 주건일 소정미 대표이사께서 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소정미 대표는 남원 보절면 출신으로,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남원에 대한 지원 등 아낌없는 기부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소정미 대표는 "남원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남원발전을 위해 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부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부사업을 착실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충현 충청신문 사장, 고향 무주에 200만원 기부

충청신문 김충현 사장이 지난 12일 무주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무주군 설천면이 고향인 김충현 사장은 이날 2백만 원을 기탁했으며 고향발전과 군민행복에 힘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충현 사장은 "고향을 떠나 산 지 오래 됐지만 늘 마음은 무주를 향해 있다"라며 "나 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고향화다 인구감소다 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이 다시금 일어설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김충현 충청신문 사장은 언론인으로서 고향 무주 관련 소식을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계룡시 등지에 고루 전하며 고향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과 쌀 등의 성품,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을 돕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별초대행서비스 등 총 47종의 답례품을 마련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는 6월 13일 기준 1,212명이 2억 4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 앞당길 것”

전북교육청, 장익 미래교육연구원장 임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뽑힌 장익 미래교육연구원장을 14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연구원장은 수업혁신과 미래교육 연구개발을 전담할 미래교육연구원의 책임자로, 미래교육 비전, 방향, 로드맵 제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장익 선임 원장은 산업공학 박사로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전주비전대 및 동명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월드프렌즈 코리아 NIPA 자문관으로 에티오피아 교육부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 자문 및 KOICA Project 엘살바도르 컴퓨터기술 지원센터(CREST) 강화사업 예비조사 교육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미래교육 방향은 디지털 대전환 사회를 이끄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행정경험과 실무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성이 풍부한 적임자를 채용하게 돼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하나금융그룹, 지역사회 공헌 상호협력 ‘맞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3일 하나금융그룹(대표이사 함영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청년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상호협력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하나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업의 거점대학으로 전주대학교가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우승구 지역대표, 전주금융센터지점 김세훈 본부장, 전주효자동지점 이재준 지점장, 전주공단지점



노석만 지점장, 서산동지점 김현철 지점장, 호남영업추진지원부 장성희 부장, 기관사업부 윤성목 차장, 전주대 박진배 총장, 공경태 창업지원단장, 이상우 창업보육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 기업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실무역량을 갖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제와이즈맨 정음샘골클럽 회장 이·취임식 개최

국제와이즈맨 한국 지역 전북지구 남지 방 정음샘골클럽(이하 샘골클럽)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정음사웨딩홀에서 제27대, 제28대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기종 전북지구 직전 총재를 비롯한 클럽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7대 이종대 이임회장은 “1년 동안 회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선주리클럽을 달성하는 등 샘골클럽이 한국지역에서 으뜸 클럽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마련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8대 김영수 취임회장은 “봉사의 시간을 참여를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샘골클럽을 한국지역 최고의 클럽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샘골클럽은 1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웃사랑성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하고 결혼가정에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13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진’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펼치는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이다. 이기동 의장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주자로 김동현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오정식 기독교협의회 전주시회장, 이석 전주총연합회소 회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라며 “지역의 마약 예방을 위해 전주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직무연수 실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고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 및 다산총림연수원에서 소속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과 다산 정약용의 사상 및 문화체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공직자 교육 실시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더불어교육혁신포럼 강일영 이사장의 2023 전북교육 핵심과제 연수를 시작으로 다산총림연수원 및 사의재 백련사 등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가 담긴 곳을 돌아보며 다산의 청렴한 삶과 애민정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성 기자



진안 7733부대 1대대 우박피해 농가 지원 팔걸어

진안군 7733부대 1대대는 13일 안전면 우박 피해 농가들에 대한 대민지원 활동을 진행해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진안군 안전면은 지난 10일 대기불안정으로 국지적 호우와 돌풍 우박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7733부대 1대대는 장병들을 투입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및 고추밭목 등 철거·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령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마령면지회(지회장 채권자)는 13일 목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식사 취약계층 30여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읍·면 지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오전 시작한 밑반찬 나눔 봉사에는 자원봉사자 8명이 참가해 배추김치, 무장아찌, 깻잎김치 등을 직접 담가 전달하며 대상자의 인부를 묻는 등 온정을 나눴다. 채권자 지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보건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

김제시 보건소(소장 정명자)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 하는 구강관리 슬로건으로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며 구강위생 실천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 날 기념행사를 운영했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 구강보건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했으며 6월 12일에는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정기적 구강검진 및 올바른 칫솔질을 강조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헌 칫솔 줄게 새 칫솔 다오’ 칫솔교체 이벤트를 진행하여 칫솔 배부와 칫솔 교체주기 및 올바른 관리법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보건소 정문 1층 구강건강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환산초, 부용어린이집, 제일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구강예방포스터를 전시하여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김제=곽태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온택트 입사서류경진대회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지난 12일 2023년 온택트 입사서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9개 학부(과) 4학년 학생 368명이 참여했으며, 운영은 학부(과)별로 예선을 실시한 후 본선에서 단과 대학별로 경합을 벌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총 38회의 사전교육(입사서류작성 특강, 자기소개서 1대1 클리닉)이 이뤄졌다. 또한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취업가이드 모바일 북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입사서류 작성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입사서류 경진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특강과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첨삭지도를 받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